

한국고분자학회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두려움과 설레는 마음으로 2010년 학회의 전무이사 일을 시작한지 얼마 지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12월이 되어 임기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최길영 회장님께서 능력이 많이 부족한 제게 2010년도 전무이사란 중책을 맡겨 주셨고, 저 또한 2010년이 다가오면서 조금 많이 걱정도 되었습니다. 이런 제가 큰 과오 없이 막중한 전무이사를 무사히 마치게 된 것은 학회 회원 모든 분들께서 학회의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 협조하여 주시고 이해해 주셨기 때문으로 생각합니다. 학회 회원님들께 지면으로나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실수가 있더라도 항상 따뜻한 마음으로 격려하여 주신 전임 회장님들과 원로 회원님들, 학회 임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학회에서는 주요 사업으로 연구논문발표회와 여러 사업들을 개최하고 있으며, 국문학술지, 영문학술지와 고분자과학과 기술지를 발간하고 있는데, 회원님들의 협조로 모든 사업들을 성황리에 마칠 수 있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2006년을 마지막으로 폐지되었던 산학연 하계 워크샵을 부활하여 가족들과 함께 유익한 세미나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국문학술지와 영문학술지는 모두 국제적으로 인지도가 더욱 높아지게 되었으며, 고분자과학과 기술지는 다양하고 깊이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우수한 연구 및 교육 자료로 자리매김 하였습니다. 그 동안 학회지의 발전을 위하여 애쓰신 편집위원장님들과 위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여건에서도 학회의 사업을 하는 데 협찬 및 광고를 게재하여 주신 산업계 회원 및 관계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몇 년 전부터 과학기술계에서는 발전을 지속하고 생존하기 위한 필수 요건으로 융·복합을 강조하고 있으며, 학교나 여러 연구기관에서 이를 위한 새로운 조직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학회는 설립될 때부터 회원들의 구성이나 학문 분야를 볼 때 이미 오래전부터 자연스럽게 고분자를 배경으로 여러 다른 학문 분야와 융·복합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는 학회입니다. 진입 장벽이 전혀 없는 저희 학회는 다양한 분야의 우수한 신진 과학자들이 계속 참여하여 학회의 주축 회원으로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러한 학회의 지속적인 발전 가능성은 매년 증가하는 학술회의 참가자와 발표논문수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10년도에도 학술회의 등록 인원 및 발표논문수가 예년에 비해 증가하여 저희 학회가 더욱 더 발전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국제 심포지움도 개최되어 학회의 국제화를 위한 초석이 되고 있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국제 심포지움을 조직하여 주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특히 금년에는 작년 전무이사이셨던 조길원 교수님의 의견을 반영하여 대학원생 구두발표 세션을 신설하였는데 학생회원들의 발표 내용이 기대보다 우수하였으며, 청중들의 호응도 매우 높았습니다. 앞으로 학생 구두 발표를 적극적으로 장려하기 위해 우수 발표에 대한 시상하는 프로그램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술회의에서 반드시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포스터 발표의 내실화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회원들은 포스터를 정시에 게시하고, 발표시간 동안 포스터 앞에서 질의에 대해 성실히 대답을 하여 발표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포스터 발표를 사전 통보 없이 발표하지 않거나, 발표 시간이 한참 지나서 포스터를 게시하는 회원들, 포스터만 붙여 놓고 자리에 게시하지 않는 회원들도 비교적 많이 게시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포스터 발표를 신청하신 회원들께서 책임감을 가지시고 성실히 발표를 하여 주셔야 하며, 연구책임자들께서도 확인을 하여 주셔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학회에서는 학회가 지속적인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산학연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왔기 때문에 그 동안 학술회의에서 산학 협력에 관련된 특별 세션을 개최하고 산학협력에 관한 주제로 여러 행사를 진행하여 왔습니다. 금년에는 이러한 노력의 결실로서 산학연 협력을 장려하기 위해 “롯데 산학연 협력상”을 호남석유화학 주식회사의 협찬으로 새로 제정하여 추계학술회의에서 제1회 시상을 하였습니다. 이 상을 제정하는데 결정적인 도움을 주신 호남석유화학 주식회사 정범식 사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학계 및 연구계 뿐만 아니라 산업계에서도 이 상을 수상하시기를 기대합니다.

제가 전무이사 일을 시작하면서 입버릇처럼 얘기하였던 것은 저희 학회는 누가 전무를 하여도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학회에는 학회를 사랑하는 회원들이 계시며, 능력이 뛰어나면서 학회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여 너무나 열심히 봉사하여 주시는 운영이사들도 계시고, 학회의 직원이 아니라 주인 의식을 가지고 일을 하여 주시는 김화순 실장, 이기욱 과장, 김보경 대리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지면 관계상 일일이 이름을 적지는 못하지만 2010년 운영이사 여러분들과 사무국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총무이사 할 때와는 너무나 다르게 전무이사가 할 여러 일을 흔쾌히 대신하여 주신 차국현 교수님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때로는 약간 지칠때도 있었지만 저에게 너무나 보람되고 값진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학회의 재정 때문에 온갖 신경 쓰시느라 너무 고생하신 최길영 회장님께 죄송한 마음뿐이며,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2010년도에 미흡한 점이 많았지만, 너그라이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회원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1년에도 건강하시고, 항상 행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한국고분자학회 전무이사 이준영>